

七月十三日

釋王寺은 지一週日이 되었다。그 동안 낮잠이 없고雜誌閱覽이 힘겨웠다。佛敎를 읽으니 人生問題「向上」을 읽으니 修養問題「如是」는 卷頭에 如是如是라 하였스니 이如是가 무슨如是인지 읽어도 알만호른다。[キン]를 읽다가는 岡田漫齋에 입을 썩었다。

七月二十三日

아침에 일찍이 元山가다。婁氏女高압을 지내 누락니 맛참았던 愛鳥家가 새콩을 消盡하느라고 陽地에 내여 두었는 것이다。철업는 어린 아이들이 새집을 열어서 재쳐서 갖췄는 새들은 婁女高압 鬚은 속속으로 날나갔다。조금 있다가 主人이나 와서 아뢰를 치며 야단을 치더니 기인간지스대애다 새籠을 매고 그속에다가 모이를 너허 아가시어나 무사이에다가 날게 달아

둔다。날너갔는 새들은 아무疑心업시 한마리씩 두마리씩籠속으로 들어가서 모이를 먹는다 主人은 이것을 가만히 내려서 문을 다쳤다。나는 이것을 보고 도망간 새장은 法을 배우고 또한 執着性이란 있던 것임을 알았다。第三者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籠속에서 苦生하든 새가 千載一遇의 好機會 있어 大空에 나간 以上에야 다시 돌아올 理萬無할 것지만은 事實에 새를 아음을 보니 執着力이 탄무서운 것인 듯하다。人生이 이 苦를 解脫치 못할은 이 執着力의 所致인 가 싶다。



八公山의 銀海寺

八公山子

八公山의 銀海寺 銀海寺의 八公山 이 산이야기하는 사람 반드시 이 절을 자랑하고 이 절을 생각하면 이 산을 聯想안이 할 수 없다。

慶尙道中央에 높이 솟은 八公山 그 支脈을 내려서 여들고 울에 盤踞하야 고을 사람들 의 崇仰의 標的이 되어 있고 그 扶輿清淑한 靈氣는 八祖師를 成就輩出하고도 依然히 磅礪不絶하야 慈母가 幼子를 抱擁하고 잇듯이 高요히 規度整肅히 누어 잇는 銀海寺一圓을 안고 있다。

八公山中허리에는 언제던지 파란실안개 霧실 안개 구름같이 피어 오른다。실안개사이로 空中樓閣같이 보이는 암자 절들이 잇다。雲浮庵 白雲庵은 이리 하야 命名된 것이다。雲浮는 銀海의 子末寺이오 白雲은 銀海의 孫末寺이다。대대로 부는 바람 새파란 실안개 안고 스스로 골짜기로 나려 銀海君을 차자간다。俄而오 친구를 이

볼삼아 銀海一幅의 고요히 잠자고 잇는 것을 은사히 볼 수 있다。

東臺老松우으로 써오르는 一輪紅 杲々히 풍실호 이며서 南山絶壁에 걸닐 때는 백가지 잡새가 한가지 옥을 노코 이 幽雅清淑하고 奇絶比絶한 風景을 讚美合奏하면 어느듯 銀海一帶를 덮어 끼여 잇는 안개는 다 사라지고 痕跡도 없다。

銀海寺의 子末寺 孫末寺 八公山안에만 열두암자가 잇나니 큰 절 큰 법당으로 불어 巳時 鍾소리가 울어나와 銀海公山을 울일때 미리기다리고 잇는 열두암자 부전스님들 一齊히 拍子를 마추어「마지씨」를 친다 저근듯 鍾소래 除音을 거두자 木鐸소래를 비롯하야 따라서 唱佛精進소래「인도소래」 잘하는 公山中들의 盤帶를 거쳐서 嚙曉히 떠올나 구슬을기 들여올때 銀海寺를 차저오는 손님 두손을 들면서 合掌하고 머리를 가만이 숙이고 깊이 / 歸依

佛! 歸依法! 歸依僧! 한다.

八公山の登山客 銀海寺의 恭拜者 四時로 곤여 집
이 없이 온다. 遠近富豪들의 納涼名所로 도이름이 높
으나 地方農民들의 恭拜地로 더욱 名聲이 들린다.

저! 大和農民들이 한여름 동안 풍사를 다 지어 노
코 『伊勢마이리』를 하더니 이 지방사람들으게는 銀
海寺 恭拜를 必然的 依例行事로 觀念을 가지고 있다
『진흙 아즈랑이 끼인 날 桃花杏花滿發하고 蜂
蝶이 散亂한 治日洞을 지나 술나무 그늘서 놀하마
부는 禁捕亭을 서서 步調를 드문~히 하야 左右
를 監히 보면 김푸른 松林사이 新綠이 피어오르고 新
綠의 사이에는 가지각색 별々 꽃이 군대~ 집
쳐 있다.

銀海寺를 차저 오는 손님 勝地의 春光에 醉하는 이도
만치 마는 銀海의 여름을 더욱 사랑한다. 天王門前
의 萬樹長林 綠陰帳幕이 진대 磐石도 한조 돌계다
川流不息 西川을 佛道場의 惠澤으로 고기도 한살지
있네 밤이 되면 林間月 月下에 숲이 우는 杜鵑새 南
庵에 念佛소래 志士와 道客으로 하여금 臆塞한 胸膈
을 共鳴도 하며 眞如의 本消息을 빛어 도준다.
가을철도라 왔다. 八公山丹楓求景 안이 하고 못살

내라 八萬의 大邱府民 왔을다 루어 많이 도 온다. 洞

口로 붙어 山行六七里 潺潺流水曲을 들으면서 百
與골 中岩골 을 나가면 滿目清光이 楓世界로 다.

『箱葉이 勝於二月花』라는 詩句는 이 같은 곳을 말한 듯
하나 實相이 詩意에 넘침을 이루어 表示할가?
中岩聖殿에 『스리크』를 멈추고 천々히 안저서 顔

山紅葉을 玩賞하고 千年壽藥水湯에 마른옥을 拭신
後 三印岩 動石岩을 차례로 巡禮한다. 妙峯의 老佛
岩에 가지~衆生願을 正襟危坐 盟誓하고 石逕
빛진길노 念々不已도라 온다.

海門橋下에 停일고 白雲峯上에 坐으면 禪房은 고
요히 禪定에 잠자고 講堂은 요란히 讀聲에 울주인다.
淨深한 方丈室 輝煌한 燈檠下 獵史는 그만두고 後

園竹韻을 마쳐 公山威德을 詠揚하고 門前松風을 마
다 銀海聖地를 讚頌하니 武陵桃園이 예안이며 羽
化登仙이 나인듯도 하다. 그러나~ 東坡居士의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이라는 詩意를
다시금~ 觀通하고 이리 한 靈山聖刹의 默示를 念
到念窮 無念處하야 心空及第 大丈夫하니 西方樂土
가 이곳인가 하노라.

行脚閑題

二月八日

◇智異山花開谷

國師庵一夜半日은 지냈다. 午飯後에 말을 옮겨 七
佛庵으로 向하였다. 花開谷노들어 서니 碧水는 흘러
莊嚴한 音響을 알외는데 峰巒은 소사 雄麗한 姿勢를 자
담한다. 옛던 詩人 畫家잇서 이智異山의 情景을 그려
내라 山谷間에 응추리고 잇는 草家 山巔에 골과 峽
가치그려 잇는 火田은 内同胞의 窮한 生活을 보이는 무
엇이 아닐사. 이조촌山水도 内同胞의 계는 苦를
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닐사. 에라두어라 가난한 老령
만해 무엇하노 차라리 苦를 轉하야 樂으로 보고 慘을
換하야 景으로 보자 陽巔에 세운 半間草屋을 仙人의
깃드리는 곳으로 보아오면 그만이다. 벽솔嶺드느골
을 右로 두고 범왕스골노들어 山村小童과 弄談하면서
작구~을나 般若峯가상에 잇는 七佛庵亞字房에

行脚子

當到하였다. 晝는 夕陽이 山巔에 向할제.
二月十三日

◇冽·淚水와 「단君」

오늘은 高氏의 史談을 들었다.
史에 冽水는 「黏蟬」을 지나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
리면이 「黏蟬」의 所在를 알면 冽水가 어느 것인지를
確知할 것이다. 그래서 丁茶山선비들은 別々臆測으로
冽水를 定하였다. 저! 丁茶山장손이도 漢江을 冽水
라하야 自號를 冽水라稱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黏蟬」의 碑를 大同江口에서 發掘한 일
이 있다. 차라 冽水가 大同江입이 明證되였다. 同時에 淚
水가 鴨綠江입도 알게 되었다.

支那宋나라 사람 孫穆이 著한 「鷄林遺事」에는 「檀
君」이라고 「檀」字를 썼고 高麗一然大師의 著한 三